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39, pp.1-39
<https://doi.org/10.29212/mh.2026..139.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논문 1

475년 ‘漢城 戰役’¹⁾의 군사학적 재검토*

신광철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 목 차
1. 머리말
 2. 475년 ‘漢城 戰役’의 전개 과정
 3. ‘漢城 戰役’의 군사학적 의미
 4. 맺음말

* 본고는 2025년 10월 23일에 진행된 특별전 ‘한성 475’ 연계 학술대회 ‘475년 한성 전투에 대한 역사학적 시선과 전쟁고고학적 접근’ 학술대회(국립공주박물관·백제학회 주최)의 발표자료집에 수록된 글의 후반부를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 1) Etienne Alexandre Bardin, 『Dictionnaire de l'armée de terre, ou Recherches historiques sur l'art et les usages militaires des anciens et des modernes, vol. 2』, Paris: Perrotin, 1841, p. 933. ; United States Joint Chiefs of Staff.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With the NATO, CENTO and IADB Glossaries incorporated』, JCS Pub 1,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1979. p. 76. 戰役(Campaign)은 戰爭(War)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 ‘대규모 군사작전으로서, 일정한 시공간 안에서 전략적 또는 작전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군사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양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전쟁이 정치·군사적 충돌의 전체 국면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면, 전역은 그 내부의 특정 작전적 국면을 지칭하는 하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 록 본고는 475년 ‘漢城 戰役’을 단순한 기습적 공성전이 아니라, 고구려가 사전 첩보 활동과 병력 동원, 포위, 화공, 보급 운용 등을 결합하여 수행한 작전적 성격의 군사행동임을 재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는 한성 함락의 외교사적 배경과 국제정세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여, 전역 자체의 전개 과정과 군사적 성격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러 문헌사료를 교차 검토하고, 한성기 백제의 관방체계, 고지형 복원, 화재 흔적, 교통로, 보급 조건 등에 관한 고고학·자연과학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당시 전역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고구려군의 남하는 단기간의 돌발적 기습이라기보다 사전 정보 수집과 첩보 활동, 병력 동원, 보급 여건 확보, 왕도 외곽 포위, 화공 등이 결합한 계획적 군사행동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한성 전역은 단일 전투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작전적 총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고는 이를 현대 군사학의 개념과 제한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장수왕대 고구려 군사행동의 일단을 살펴해보았다.

이 같은 검토는 475년 한성 전역을 둘러싼 기존의 이해를 수정하고, 장수왕대 고구려의 전략 수립 및 전쟁 수행 방식에 내재한 계획성·입체성·연속성을 보다 분명하게 조명하게 해준다.

주제어: 장수왕, 한성 전역, 작전적 총위, 군사행동, 기습론

1. 머리말

475년 고구려의 한성 공략은 삼국 간 세력균형 및 한반도 중부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재편한 사건으로써 5~6세기 三國史를 통틀어 가장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은 『三國史記』 각국 本紀와 『日本書紀』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한성 일대의 고고자료 및 자연과학분석 결과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대 전쟁을 '戰役'의 차원에서 재구성하고 해석할 수 있는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게다가 '한성 전역'은 단순히 한 번의 공성전으로 보아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더욱 복잡한 군사행동으로서 그 성격을 검토하기에 적절한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현대 군사학의 개념을 차용해 당시 전역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이를 5세기대 삼국에 그대로 대응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의 위험을 수반하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조직하고 운영한다는 문제 자체는 시대를 초월해 존재해 왔다는 것 또한 강조하고 싶다.

고대 중국에는 일찍부터 『孫子兵法』을 비롯한 兵書 전통이 존재했고, 삼국 역시 그러한 군사적 사고와 전쟁 경험을 공유하거나 變容해왔다.²⁾ 즉, 현대 군사학 개념을 사료의 언어와 동일시할 수

2) 宋昌基, 「고대병서 잡록」, 『군사』 14, 1987; 김영수, 「삼국시대 병법서의 수용과 그 활용」, 『民族文化』 29, 2006. 대무신왕 11년(28), 요동태수 침입 시 작전회의 내용을 보면 '憑險出奇', '謀伐=伐謀', '開城自固=堅壁', '待其師老, 出而擊之=散地' 등의 개념과 용어가 등장하는데, 모두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이다. 『史記』 및 『漢書』 『藝文志』 兵書略에 의하면 『吳孫子兵法』(손자병법)과 『吳子』, 『司馬法』,

는 없지만, 전쟁 수행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제한적인 설명 틀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³⁾ 본고 역시 이러한 전제 위에서, 개념의 직접적 적용이 아닌 분석적 참조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475년 한성 전역이 단순한 ‘기습’이나 ‘일회적 공성전’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⁴⁾ 장수왕의 친정, 3만 대군의 동원, 王都 포위, 북성과 남성의 연속적 공격, 화공 및 개로왕의 탈출과 피살, 포로 확보와 戰後 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이 사건을 단일한 전투로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한성 함락이 ‘전투’의 차원이 아니라, 전쟁의 諸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역’의 시각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문헌사료를 교차 검토하고, 고고자료와 자연과학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한성 전역의 전개 양상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한성 전역의 군사적 성격을 재평가하되 한성 전역이 ‘전략’과 ‘전술’의 단순한 병렬·총합이 아니라, 양자를 매

『尉繚子』, 『三略』, 『濟孫子』(손빈병법) 등의 병서가 보이는데, 당시 적잖은 병서와 군사교리 등이 고구려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전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박재일, 「손자병법의 性格에 관한 연구-손무의 저술목적, 기술내용, 기술형식을 中心으로-」, 국방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56~71쪽. 「국방과학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전략’·‘전술’을 보면 전투를 위한 ‘전술’ 및 여러 전술적 선택의 총합이자 상위 개념인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5~6 세기를 하한으로 했을 때 이와 같은 용어는 문헌사료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자병법』 등을 통해 우리는 고대 동아시아에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전략과 전술의 중간 개념인 ‘작전술’도 마찬가지이다.

4) 鄭載潤, 「475년 漢城戰鬪의 軍事戰略과 戰爭史的 意味」 『軍史』 50, 2003; 위가야, 「472~475년 백제·고구려의 對북위 외교전과 한성 함락」 『高句麗渤海研究』 66, 2020. 양자 모두 당시 사건을, 불안정한 對북위 전선을 두고 남쪽의 백제를 단숨에 제압한 ‘기습’으로 이해하였다. 단, 鄭載潤은 한강 북안에 단계적으로 구축된 고구려의 관방체계를, 위가야는 도림으로 대표되는 치밀한 첩보 활동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개하는 중간 단계의 군사행동, 즉 ‘작전적 총위’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리하면 본고의 목적은 475년 한성 전역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5세기대 고구려의 전쟁 수행 방식이 지닌 복합성과 입체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있다.

2. 475년 ‘漢城 戰役’의 전개 과정

가. 前提: 문헌사료 검토

9월, 왕이 군대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왕이 도읍한 한성을 함락하고, 그 왕 부여경을 죽였으며, 남녀 8천 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장수왕 63년(475)

가을 9월, 고구려왕 거련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와서 왕도인 한성을 포위하였다. 왕이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못하니 고구려 사람들이 군사를 네 길로 나누어 협공하고, 또한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 … 고구려의 대로 제우·재증걸루·고이만년 등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북성을 공격하여 7일 만에 빼앗고 옮겨서 남성을 공격하니 성안에서는 위태롭고 두려워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21년(475)

가을 7월, 고구려왕 거련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왕 경이 아들 문주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다. 왕이 군사를 내어 구해주려고 하였으나, 미처 도착하기 전에 백제가 이미 함락되었고 경 또한 살해되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자비마립간 17년(474)

『百濟記』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개로왕 을묘년(475) 겨울, 박[고구려]의 대군이 와서 대성을 7일 밤낮으로 공격하였다. 왕성이 항복하여 함락되니 위례를 잃었다. 국왕과 태후, 왕자 등이 모두 적의 손에 죽었다”.

『일본서기』 웅략기 20년(476) 겨울⁵⁾

당시 사건은 「고구려본기」에 29자, 「신라본기」에 40자로 기록된 반면, 「백제본기」에는 무려 655자에 걸쳐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 『일본서기』에도 148자로 기록되어 있다. 서술의 길이와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으나, 각 사료가 전하는 한성 전역의 주요 골격은 대체로 일치한다. 이를 종합해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戰役 始點은 가을 9월과 겨울 10월 사이이다.
2. 고구려군의 규모는 3만의 大軍이다.
3. 고구려 첩자 도림은 미리 백제에 잠입해 활동 중이었다.
4. 장수왕의 親征으로, 양군의 軍統帥權은 국왕이 행사했다.
5. 백제 降將 고이만년·재증걸루가 원정군 장수로 참전했다.
6. 北城[大城]이 7일 만에 함락되고 연이어 南城도 공격을 받았다.
7. 고구려군이 火攻으로 승기를 잡아 성을 함락하였다.
8. 개로왕이 탈출에 실패해 붙잡히고, 일족은 몰살됐다.
9. 장수왕은 戰後 포로 8천 명과 함께 평양으로 돌아갔다.
10. 신라군과 돌아온 문주는 應戰 대신 웅진으로의 南遷을 택한다.

5) 통상 겨울은 (음)10월 이후를 지칭하는데, 웅략 20년을 476년이라고 한다면, 전쟁이 벌어지고 1년 뒤에 해당 기사를 남긴 셈이 된다. 한편, 웅략 21년 3월에 汶洲王에게 久麻那利[웅진]를 주어 復國을 도왔다고 하는데, 내용의 진위를 떠나 문주왕은 한성 함락 직후인 475년 10월에 웅진으로 천도해, 476년 3월에는 송에 사절단을 보내는 등 본격적으로 정사를 펼친다. 즉, 『일본서기』의 기사에 1년의 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 고구려군의 전략·전술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군의 지휘체계이다. 고구려군의 최고 지휘관은 장수왕, 차상위 지휘관은 對盧⁶⁾ 제우이다. 그리고 그 휘하에는 백제 降將 2명 외에 적지 않은 수의 지휘관이 있었을 것이다. 대대로가 1만 명 이상을 지휘할 수 있는 大模達에 임명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휘하에는 편제에 따라 末若·領千人·幢主급 무관 다수가 편성되었을 것이다.⁷⁾

둘째, 고구려군의 규모이다. 보통 大軍이라 함은 3~5만 명 수준으로 5천 정도의 병력을 분대로 운용해도 작전상 큰 문제가 없는 편제이다.⁸⁾ 한편, 『三國志』의 坐食者와 下戶, 전투·치중 병력을 구분한 고대의 통상적인 편제,⁹⁾ 한성 점령 후 戰後 처리를 위한 행정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3만은 전투 병력만 계산한 수치라

6) 고구려의 최고 관위는 『魏書』에는 謁奢, 『周書』에는 大對盧, 『隋書』에는 太太兄, 『冊府元龜』에는 大對盧, 『翰苑』에는 吐粹로 적혀 있다. 5세기 후반이라면 『위서』에 나오는 謁奢가 최고 관위여야 하며, 대로는 보이지 않는다. 단, 『한원』(7세기 중반)에 처음 명시된 拔位使者(8품)가 <충주고구려비>(5세기 중반)에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료가 고구려 관위의 변천 과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태왕의 親征인데다가 중국 측 사서에 기록된 시기별 고구려 관위 변천 과정을 봤을 때, 제우의 관위는 『위서』의 '대로(4품)'보다는 고구려 후기 최고 관위로 인식되어 온 '대대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는 훗날 주필산전투에 참전하는 高正義의 관등(대로)과도 비교할만하다.

7) 신광철,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韓國上古史學報』 74, 2011, 177~181쪽. 攻城 시 네 갈래 길로 공격한 것을 보면, 적어도 각 방면의 병력마다 당주·영천인급 무관 다수가 배치됐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8)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槲峯城 전투와 功勳의 逆相續」 『北岳史論』 18, 2023, 161~162쪽.

9) 孫繼民, 『唐代行軍制度研究』, 北京: 文津出版社, 1995, 238~239쪽; 崔珍烈, 「唐太宗 高句麗 親征과 唐軍의 병력-군량으로 추산한 唐軍의 수와 그 함의」 『軍史』 124, 2022, 154쪽. 수 양제가 고구려 원정 시 동원한 치중 병력은 전투 병력의 2배였는데, 이는 가축과 수레를 이용하여 일꾼의 숫자를 줄인 수치이다(崔珍烈). 唐代 標準行軍制度에 따르면 치중병의 비율은 전체 병력 대비 30% 규모인데, 수만의 대군이 타국에 원정하러 가는 경우, 별도의 치중 부대는 반드시 필요했다.

고 보는 게 적절하다.

셋째, 도림의 신분이다. 당시 승려는 국경을 초월해 布教했던 터라 그 과정에서 간첩이라고 의심받는 일이 잦았고, 실제 간첩들이 승려의 신분을 차용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도림은 불교 전파 이래 뚜렷한 求法 활동이 보이지 않던 백제와 달리, 대대로 유능한 구법승을 배출한 고구려 출신이었기에¹⁰⁾ 그 명성과 지위, 개인의 능력 등을 내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고이만년과 재증걸루의 죄목이다. 비유왕 즉위 후 舊왕統[解氏]과 집권층[眞氏], 新왕統[扶餘氏] 사이의 권력 다툼이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외에 이탈 집단이 더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75년 전역에서 백제 북부의 관방체계가 침묵한 것이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백제 降將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장기간 진행된 전쟁 준비 과정에 기여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다.

다섯째, 고구려군의 進軍 및 전투 과정이다. 평양 또는 황해도에서 출병했을 고구려군이 당연히 백제 북부에서 치렀어야 할 전투 기록이 없다. ‘사료의 침묵’이 곧 ‘역사적 사실의 부재’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병 이후 한성 포위까지의 과정이 전부 생략된 것은 다소 의아하다.¹¹⁾ 여기에서 핵심은 ‘전투가 전혀 없었는가?’보다 ‘백제의 방어체계는 왜 고구려군을 실질적으로 저지하지 못 했는가?’일 것이며, 이것이 한성 전역의 재구성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다.

여섯째, 신라의 전쟁 준비 사항이다. 「신라본기」에는 이를 474년 가을 7월의 일로 적고 있다. 분명히 문주는 한성이 포위되기

10) 沈敬順, 「古代 百濟僧 研究」, 全州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20.

11) 단순 기록 누락, 압축 서술, 패전 서사의 생략, 국지전 기록 미비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아차산 아래에 고구려군 본영이 꾸려졌다는 기사를 보면, 적어도 도강 직전의 전황만큼은 기록되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전에 백제를 떠나 있었고, 신라군 1만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단기간에 전쟁 준비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신라 측 시각이 반영된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라가 더 일찍 정보를 입수해 전쟁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곱째, 장수왕은 포로 8천 명과 함께 돌아가는데, 이 기사가 오직 「고구려본기」에만 나온다는 것이 주목된다. 『삼국사기』에는 국왕의 행차(巡狩, 전쟁, 사냥, 제사 등)에 대해 대부분 왕복 사실을 明示하는데, 이 또한 그런 의도로 기록된 기사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당시 적국의 영토를 점령 통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성 함락 후 성내를 약탈하고 도성과 궁실을 불태우는 것이 일상이었다.¹²⁾ 즉, 이는 장수왕이 포로 8천 명과 함께 먼저 귀환했음을 暗示한 기록일 뿐이다.

여덟째, 문주왕은 10월에 웅진으로 천도하며, 이듬해 2월에는 대두산성을 수리하고 한강 북쪽의 백성들을 옮긴다. 만약 舊 왕도에서의 백제 통치권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이럴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한성 일대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지도 않았고, 포로 8천 명만 데리고 귀환했기 때문이다. 즉, 한수 이북의 백성 이주 사례는 공식적으로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가 한성 일대에 대한 지배권 포기를 闡明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12) 246년 고구려 환도성을 함락한 관구검은 환도성뿐만 아니라 옥저의 읍락까지 파괴하였다. 342년 고구려 환도성을 함락한 모용황은 남녀 5만 명과 누대에 걸쳐 쌓은 보물, 미천왕의 시신을 가져가고 성과 궁실을 불태웠다. 436년 북연의 용성을 확보한 고구려군 역시 성내를 약탈한 뒤 포로 수만과 떠나면서 궁실을 불태웠다. 만약, 고구려가 백제 영역을 점령 통치할 생각이 없었다면, 한성 또한 마찬가지로 과정을 겪으며 파괴되었을 것이다.

나. 開戰: 문헌사료 및 고고자료 검토

먼저 고구려군의 출병 시점을 살펴보겠다. 한성 포위가 시작된 시점은 9월, 문주왕의 웅진 천도 시점 및 『일본서기』에 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한 시점은 10월이다. 한 달 터울이기는 하지만, 전투가 7일[七日七夜]에 걸쳐 벌어졌다는 기록에 따르면, 그 기간은 9월 말과 10월 초에 걸쳐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평양에서 서울(550리/약 220km)¹³⁾까지는 도보로 약 105시간, 기마로 약 14시간 거리이다.¹⁴⁾ 공성전을 염두에 둔 편제라고 했을 때 병력은 步騎 혼성군이었을 테고, 병력의 최소 행군일수는 5일이다. 평안도·황해도의 추수 기간이 8월 중순인 점을 고려하면,¹⁵⁾ 出兵은 인력과 군량에 여유가 생기는 추수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전쟁 시점을 두고 ‘가을’ 또는 ‘겨울’이라고 적은 것을 보면, 9.22.(立冬) 즈음에서 10월 초 사이, 換節期에 걸쳐 전투가 치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日子를 계산해보면 병력 동원이나 군량 확보뿐만 아니라 백제 측 수확물까지 확보 가능한 시점을 고려해 출병 일자를 택했다고도 할 수 있다.¹⁶⁾

13) 류명환, 「義州路 道程 기록 계통 연구」 『韓國古地圖研究』 6-1, 2014.

14) 조법중, 「高句麗의 郵驛制와 交通路-國內城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 연구』 63, 2011, 46쪽. 한~위진남북조대 우역제를 참고했을 때, 사람의 이동 거리는 시간당 4.5~5.3리(중간값 5.3리/약 2.1km), 기마의 이동 거리는 1일 400~414리(약 157~162.5km) 정도이다. 주간에 10시간 정도 움직인다고 하면 1시간에 41리(약 16km) 정도 이동 가능하다.

15) 정치영, 「『千一錄』을 통해 본 조선후기 농업의 지역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2, 2003. 지역별 節候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비해 황해·평안·함경도는 각각 5·10·20일씩 늦다. 즉, 백제는 8월 중순에 이미 추수가 끝났고, 황해~평안도 일대는 8월 말이 되어야 모든 추수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16) 이희경, 「백제 국가형성기 농업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187~191쪽. 한성기가 되면 이전부터 재배해 온 잡곡·두류뿐만 아니라 쌀과 맥류, 피 등 재배작물의 범위가 확대된다. 겨울 보리의 파종기를 고려하면, 고구려는 장기전을 대비한 군량 확보도 염두에 둔 최적의 시점을 선택한 셈이 된다.

〈표 1〉 475년 한성 전역 진행 과정 추론

	날짜				비고
	月		日		
	간지 (음력)	그레고리력 (양력)	간지 (음력)	그레고리력 (양력)	
1			7 (己巳)	9.22. (추분)	추수: 京畿 지역
2	가을 8 (乙酉)	9~10	12 (甲戌)	9.27. ¹⁷⁾	추수: 황해도(경기+5일)
3			17 (己卯)	10.2.	추수: 평안도(경기+10일)
4	가을 9 (丙戌)	10~11	17 (己酉)	11.1.	출병(평양) 시점 하한
5			22 (甲寅)	11.6. (입동)	한성 포위 시작(7일 공격)
6	겨울 10 (丁亥)	11~12	1 (壬戌)	11.14.	한성 함락(10월 초하루) 문주 웅진 천도(함락 직후?)

더불어 이쯤에는 서울에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중랑천·탄천을 따라 남북으로 바람이 분다. 가을의 풍속이 가장 약한 편이지만, 강수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북풍·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화공을 시행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시점이었다.

고구려군의 진군로와 도강 문제도 중요하다. 당시 고구려군은 아차산 아래 楊津(광나루)¹⁸⁾에서 渡江했을 텐데, 아차성 아래에 장수왕의 本營까지 두었다.¹⁹⁾ 여기에 경기 북부부터 한성 일대까

17) Yongho Choi · Sung Ju Cho, 「Climate Variability and Agricultural Outputs in North Korea: An Econometric Analysis of Rice and Corn Yields」 『Climate Variability and Agricultural Outputs in North Korea: An Econometric Analysis of Rice and Corn Yields』 31, 2024. 최근 북한의 상황을 보면 황해남도는 9월 하순~10월, 황해북도는 10월 초에 본격적으로 추수를 진행하며, 평안남도는 10월 중순에 시작해서 늦어도 11월 초에는 완료한다. 과거와 현재의 세부적인 편차는 있겠으나 북쪽으로 갈수록 추수 시점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18) 『大東地志』에는, '아차산 동쪽 언덕 廣津의 위에 있으며, 한강수에 접하고, 廣州 坪古城(풍납토성)과 강 건너 마주 보는 楊津城, '아차산 정상에 유지가 남아 있는 峩嵯山古城 등 2개의 성이 등장한다. 현재 아차산성이 아닌 또 다른 성지에 대한 기록인데, 위치 정보를 통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19) 책계왕 원년(286), 고구려의 침입을 대비해 아차성과 蛇城을 수리한 이래 이곳은 줄곧 백제 영역이었다. 한수 도강 및 한성 포위를 위해서 고구려군이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곳임에도 관련 전투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지 구축된 백제의 교통로²⁰⁾를 타고 내려왔다고 한다면, 고구려군의 남하는 돌발적인 기습이라기보다 이미 일정한 경로와 거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된 체계적인 군사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급의 문제는 이러한 해석을 더욱 뒷받침한다. 한 사람당 곡물 소비량을 1일 15홉이라고 했을 때,²¹⁾ 3만 명 기준으로 하루에 450石, 한 달로 치면 13,500石, 무려 2,754~3,275t에 달하는 식량이 필요하다.²²⁾ 2륜 牛車(0.5~1.0t)와 4륜 우차(1.5~2.0t)의 운송량²³⁾을 참작하면 당시 수천의 수레와 소가 동원되었을

20) 허의행, 「한성기 백제 도성의 입지와 공간 구성의 검토」 『고고학』 22-2, 2023, 74쪽. 李旼燮, 「百濟 交通路의 考古學的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5. 한편, 도로 폭을 기준으로 백제 교통로의 위계를 나누는 연구(李旼燮)를 참고했을 때, 당시 고구려와 백제 북부의 도로체계가 유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겠다.

21) 崔珍烈, 앞의 논문, 2022, 148쪽. 『通典』 「州郡典」 기준으로 唐代 병사 1명의 1일 곡물 소비량을 계산하면 약 11홉이다. 또한, 宋代 『夢溪筆談』 「官政」에 따르면 병사 1명의 곡물 소비량을 2승(20홉)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선조 29년(1596) 9월 8일 기사에 의하면, 군사 1인당 매일 쌀 1되 5홉(15홉/은 2푼)과 소금·채소(은 3푼), 말 1마리당 매일 콩 3되(30홉)와 마초 1다발을 합쳐 중량 15근(은 2푼)이 필요하다고 했다. 3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매달 쌀 13,500석, 말 2만 마리를 기준으로 콩 1만 8천석, 마초 60만 다발이 필요한 셈이다. 즉, 시기별 곡물 소비량을 감안했을 때, 5세기 고구려에서는 병사 1인당 하루에 15홉(11~20홉 중간값)의 군량이 지급된 것으로 추산하겠다.

22) 吳慧, 「魏晉南北朝隋唐의 度量衡」 『中國社會經濟史研究』 1992-3, 1992; 충북연구원, 「附錄. 우리나라 도량형의 변천 약사」 『100년 전 충북의 옛 모습』, 2004, 142~146쪽; 戴衛紅(方國花 譯), 「서진 도량형의 발전 변화-郴州 簡簡을 중심으로-」 『목간과 문자』 32, 2024, 204쪽. 개화기 전에는 15斗[말]를 小斛(작은 섬), 20斗를 大斛(큰 섬)으로 분류하다가 20세기 이후 10진법에 따라 100升[되]을 1石[섬](180.39리터)으로 정의하기 시작했다(충북연구원). 하지만 고대 중국의 경우, 漢代에는 1승에 2.04리터, 西晉 이후에는 1승에 2.426리터로 증가한다(吳慧). 또한, 漢代부터 대·소곡제도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후대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戴衛紅). 일찍부터 賑貸法을 시행했던 고구려였기에 곡물의 용량에 대한 세분된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3) 박호석, 『한국의 재래농기구』, 한국학술정보, 2004.

것이다.²⁴⁾

여기에 치중 병력과 그에 따른 마소의 곡물 소비량까지 더한다면, 단기간의 급습이라면 몰라도 왕도 포위와 공성전을 수반하는 전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급선 유지 또는 현지 조달 체계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만약 백제군이 고구려군의 보급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거나 교통로상의 거점을 봉쇄할 수 있었다면, 戰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일진대 결과적으로 백제군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한성기 백제의 관방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확인된 한성기 백제성곽과 보루는 약 40개소로 왕도 주변과 중랑천로·왕숙천로·한강수로의 길목, 경기 남부와 안성천 일대에서 이 같은 관방체계가 확인된다.²⁵⁾

즉, 고구려군이 남진하는 과정에서 백제의 관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고구려군이 한차례의 전투도 없이 안정적으로 아차성 아래에 본영을 꾸리고, 강 건너 풍납토성을 포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특히 각 관방에서 풍납토성까지의 거리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 한성은 상당 기간 고립된 상태였을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부 이탈 때문인지, 지휘체계의 혼란 때문인지, 혹은 사전 교란 및 정보전 때문인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소한 475년 전역에서 백제의 북부 방어체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크다.²⁶⁾

24) 고구려 수군이 안정적으로 군량을 보급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겠으나, 475년 당시 수군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본고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25) 이승우·양시은, 「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 관방체계 연구」 『고조선단군학』 49, 2022; 강동석, 「한성백제 도성 안팎의 공간구조」 『물의 기억, 한성의 역사』 풍납토성 발견 100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2025.

26) 유연성, 「임진왜란기 한성 주변 전투의 전략적 의의」 『韓日關係史研究』 48, 2014. 임진왜란 당시 한성 수복을 위해 벌어진 전투 양상을 살펴보면, 475년 풍납토성 주변에서 백제군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사항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다. 終戰: 고고자료 검토 및 자연과학분석

왕도에 도달한 고구려군은 한성을 포위해 네 갈래 길로 공격하였으며, 북성을 7일 만에 함락한 뒤 남성을 압박했다. 이는 단순한 정면 공격이 아니라, 왕도를 여러 방향에서 동시 압박하고 내부의 선택지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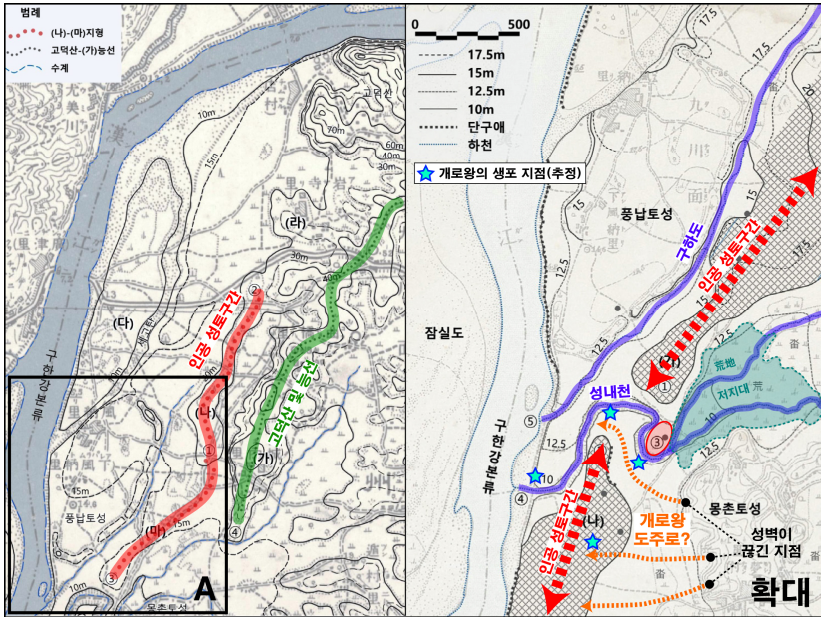
개로왕이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못한 것을 보면 전투 개시 직후부터 백제가 주도권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북성의 조기 함락은 남성의 방어 의지와 사기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며, 그 결과 왕도 전체의 분위기가 급속히 위축되었을 것이다. 즉, 포위 공격은 단순히 병력 배치·운용의 방식뿐만 아니라, 백제의 정치적 중심지(장소)와 군사적 대응력(의지)을 동시에 압박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화공은 이러한 포위의 효과를 극적으로 증폭시켰다. 사료에는 화공이 중요하게 기술되어 있는데,²⁷⁾ 해당 전술이 우연히 채택되었다기보다 당시 고구려 측이 계절·풍향·강수량 등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해 전술을 수립했음을 추정케 한다.

개로왕의 탈출과 피살은 이 전역의 최종 국면을 보여준다. 고지형 복원 연구에 따르면, 왕도 중심부에 조성된 인공 성토 구간 사이를 흐르는 성내천을 따라 개로왕이 탈출을 시도한 것 같다. 이때 그를 붙잡은 이가 백제 降將이라는 점은, 적어도 고구려 측이 현지 지형과 예상 도주로에 관한 정보를 일정 정도 확보했을 가능

27) 현재 화재 흔적은 풍납토성에서만 확인되지만, 이 흔적을 곧바로 475년 전투의 흔적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데에는 주의를 요한다. 당시 두 성 모두 화공을 받았을 가능성, 몽촌토성을 재건하면서 화재 흔적이 사라졌을 가능성, 市街戰 과정에서 풍납토성에 추가 화재가 일어났을 가능성, 475년 전쟁과 상관없는 화재일 가능성 등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성을 시사한다. 동선을 의도적으로 유도했을 가능성까지 의심될만큼, 고구려군은 전장의 마지막 국면에서도 비교적 주도권을 유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1〉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인근의 1910~1920년대 지형
(이성호 2021: 8; 2022: 13 수정)

戰後 처리 문제 역시 한성 전역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고구려본기」는 장수왕이 포로 8천 명과 함께 돌아갔다고 하고, 「백제본기」는 웅진 천도 후 백제가 漢北의 백성을 남으로 옮겼다고 한다. 여기에 몽촌토성에서 확인된 5세기 중후반의 고구려 문화층, 한성기와 웅진·사비기 백제 저장수혈군의 분포·밀집도 변화상, 남한지역에서 점차 증가하는 고구려 관련 고고자료 등을 함께 보면, 475년 이후 한강 유역의 질서가 실질적으로 재편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한성 일대 전역에 대한 일률적이고 완전한 점령통치를 의미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소한 475년 이후에는 백제가 옛 왕도와 한강 유역에 대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배권을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또한 한성 함락이 일시적 타격이 아니라 백제 측의 정치·군사 질서의 구조적 붕괴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475년 한성 전역은 사전 정보 수집과 내부 교란, 대군의 출병과 보급, 적 방어체계의 무력화, 왕도 포위와 화공, 적 장 참살과 전후 처리 등이 단계적으로 결합한 연속적 군사행동이 었다. 따라서 어느 한 장면만을 떼어서 볼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 속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

3. ‘漢城 戰役’의 군사학적 의미

가. ‘기습론’의 재검토와 5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475년 한성 전역을 설명하는 기존 시각 중 하나가 이를 고구려의 ‘기습’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실제 백제는 고구려군의 남하를 저지하지 못했고, 왕도는 포위되어 단기간 내에 함락되었으며, 결국 개로왕은 탈출 도중 붙잡혀 살해되었다. 이러한 전개와 백제 측 대응을 고려하면, 한성 전역이 백제에는 기습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기습’이라는 표현이 설명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의미라면 이 개념이 유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곧 전역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전투는 소수 병력에 의한 急襲이 아니었다. 장수왕이 직접 지휘하는 대군이 동원되었고, 이 병력은 경기 북부를 지나쳐 남하한 뒤 아차산 아래에 본영을 두고, 한수를 건너 왕도를 포위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사전 준비와 계획 수립, 이동 경로의 확보, 그리고 일정 수준의 보급 유지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성 전역은 전장에서는 기습적 효과를 보였을지 모르나, 준비와 실행 단계를 포함한 전체 성격은 단순 기습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백제의 관방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습론'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핵심이다. 사료에 기록이 없는 것은, 백제의 방어체계가 이미 전역 초반, 일정 부분 약화되었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암시한다.

이와 함께 도림의 존재 역시 한성 전역을 단순한 기습으로 환원하기 어렵게 만든다. 도림은 전쟁 이전부터 백제 내부에 잠입하여 개로왕의 측근이 되었고, 백제 政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사료에 적힌 내용 이외의 활동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한성 전역에 유리한 첩보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바로 이 점이 한성 전역을 전투 차원의 기습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즉, 기습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전장 효과일 수는 있어도 전역의 본질을 꿰뚫는 개념은 될 수 없다.

이는 당시 국제정세를 통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5세기 동아시아는 삼국만의 폐쇄된 질서가 아니라, 南北朝와 倭 등을 포함한 보다 넓은 국제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4세기 이래 고구려는 동방의 霸權國²⁸⁾으로서 北朝와 별개의 천

28) John J. Mearsheimer(이춘근 譯),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미중 패권경쟁의 시대-』, 김앤김북스, 2017, 39~80쪽. 국제 체계에서 '국가'라 함은 '강대국'만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는 제외하기 때문인데, 강대국 중 특정 지역에서 완전한 패권적 지위를 추구한 유일한 존재를 '패

하관 및 세력권을 영유하고 있었고,²⁹⁾ 평양 천도 이후에는 더욱 안정된 지배 질서를 구축해 나갔다. 반면, 백제는 적극적인 대외 교류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475년 전역은 단지 남쪽에 자리한 一國의 왕도를 强襲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수왕대 이래로 고구려가 유지해 온 국가전략을 충실히 따른 결과물이었다.

이를 현대 국제정치이론을 제한적으로 참조해 살펴보겠다. ‘현실주의’³⁰⁾에 이어 등장한 ‘新현실주의’는 오늘날 많은 비판을 받지만³¹⁾ 여전히 사회 각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오히려 그에서 다종다양한 이론이 파생되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이 ‘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이다.

전자의 주창자인 존 미어세이머는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비중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강대국의 유일한 목표는 ‘패권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³²⁾ 한편, 후자를 주장한 스티븐 월트는 신현실주의에서 강조하는 ‘국력’보다 ‘위협’에 더 주목한 ‘위

권국’이라고 한다. 동방의 패권국이었던 고구려와 달리 6세기대 백제는 한반도 중부 이남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남조 양에서는 백제를 여러 旁小國을 거느린 宗主國으로 인식하였고(『梁職貢圖』), 신라는 백제 통역이 있어야 소통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梁書』). 실상을 떠나 당시 국제질서 속에서 백제가 특정 지역의 강대국으로 공인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9)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표문에서 ‘樂浪 등 여러 郡은 首丘之心을 품고 있다.’라고 한 것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漢代 이래로 중원 왕조가 갖고 있던 동방 영토에 대한 욕심을 자극한 발언이다. 단, 비록 동방 각국의 군주를 책봉하고, 요동에 대한 자국만의 입장을 갖고 있었던 북위였지만, 해당 지역의 실점 유자인 고구려 또한 의식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30) 金暎浩,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비판적 고찰」 『國際政治論叢』 37-2, 1998, 3쪽. 현실주의는 그 자체로 검증될 수 있는 이론(theory)이나 가설(hypothesis)이 아니므로 ‘-전통’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 31) 양준희·박건영,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비판」 『國際政治論叢』 51-3, 2011; 남보람, 「군사-전쟁 이론 패러다임에 대한 고찰: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과 현대 군사-전쟁 이론 (4)」 『국방정책논단』 385, 2011.
- 32) John J. Mearsheimer(이춘근 譯), 앞의 책, 2017, 78~79쪽.

협균형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³³⁾

판보싱은 ‘방어적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고대 삼국의 관계를 조명하였으며,³⁴⁾ 박찬우는 월트의 이론에 따라 ‘공격적인 행동과 위협’이 한성 전역을 초래했다고 해석하였다.³⁵⁾ 한편, 임대천은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에 근거해 고구려의 외교적 자주성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³⁶⁾

해당 관점에서 보면, 당시 고구려의 행동을 단순한 팽창 본능의 발로로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고구려가 遼西 以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³⁷⁾ 자국 중심의 천하관에 균열을 일으켜 한 백제의 외교·군사적 움직임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더 컸다. 이는 ‘무제한적 팽창’보다는 방어적 관점에서의 ‘잠재적 위협의 제거’에 더 가깝다.

다시 말해, 한성 전역의 핵심은 ‘고구려가 갑자기 백제를 공격했다’가 아니라, ‘왜 그 시점에, 그 방식으로, 백제 왕도를 공격하였는가?’이다. 그렇기에 기슭은 전역 전체를 규정하는 본질적 개념

33) Stephen M.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9-4, 1985, 3~43쪽.

34) 판보싱, 「동북아에서 강대국의 부상과 주변국의 동맹전략 선택-백제와 신라의 사례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35) 박찬우, 「5세기 삼국의 대외 위기의식과 전쟁-평양 천도에서 한성 함락까지-」 『한국고대사연구』 112, 2023, 171~175쪽.

36) 임대천, 「5세기 동북아시아 패권 경쟁 시기 고구려·북위·송의 삼각관계 동학-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37) 백석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존 미어사이머의 입장과 그의 공격적 현실주의 간의 관계: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이론 체계」, 『한국과 국제정치』 41-2, 2025., 53~58쪽. 미어세이머는 본인의 이론에서 발생한 변칙을 설명하기 위해 보조 가설 2개, 즉, ‘계산된 공격’과 ‘육군력의 우위 및 바다의 차단성’을 도입했다. 고구려는 대대로 요서 이동의 패권국으로 군림했고, 북위 또한 이를 인정했다. 이후 고·수/고·당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쪽으로 진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수·당에 비해 자국이 결정적 군사력 우위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을 것이다. 더불어 역대 중원 왕조처럼 四夷를 자국 천하에 예속시켜 본 경험이 없었고, 4세기대 구축된 천하관에 근거한 국제관계를 구축해 왔기에 이후로도 요서 너머로 진출할 국가전략급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라기보다, 고구려의 전략적 대응이 전장에서 구현된 한 방식으로 재위치될 필요가 있다.

결국, 475년 한성 전역은 국제정세에 대한 장수왕의 치밀한 계산과 이해, 백제를 둘러싼 위협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군사행동이 중층적으로 결합한 결과였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첩보와 포위, 화공, 나아가 전략과 전술 사이의 작전적 층위를 해석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 전략·전술의 總合, ‘한성 전역’

전략이라는 개념은 소위 프랑스 대혁명 또는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근대적인 군사전략으로 발전했고,³⁸⁾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전략(Grand strategy)’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전·평시를 망라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뜻하는 것으로서 국가전략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³⁹⁾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타국뿐만 아니라 자국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인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⁴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국가전략은 오늘날 차원 및 범위, 기간, 방법, 대응 자세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성 전역의 발생 원인 중 하나를 서부전선에서 북위의 도발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함으로 보기도 하지만,⁴¹⁾ 전역 전후로 고구려는 남북조 모두에 매년 사절단을 보내며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즉, 고구려는 한성을 강습한 것도 아니었고, 서부전선과 남부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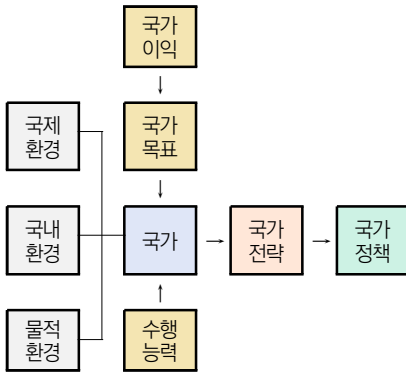
38) Edward N. Luttwak(이동욱 譯), 『전략: 전쟁과 평화의 논리』, 경남대학교출판부, 2010.

39) B. H. Liddel Hart(주은식 譯), 『전략론』, 책세상, 1999.

40)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국가전략·포괄적 안보전략·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통일연구원, 2000, 12쪽.

41) 鄭載潤, 앞의 논문 2003, 301~302쪽.

〈표 2〉 국가전략 수립의 모식도



〈표 3〉 국가전략 유형 구분

기준	국가전략
차원 범위	대전략(강대국에 한정) 부분별 전략(중소국가에 해당)
기간	장기전략, 중기전략, 단기전략 (국익 및 국가목표와 연동)
방법	직접접근전략(국가 주도전략) 간접접근전략(국가 유도전략)
대응	능동적 전략, 수동적 전략
기능	사전예방(불리함방지, 유리함유도) 사후대응(불리함극소, 유리함극대)

두 곳에서 동시에 군사작전을 펼칠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았다. 한 성 전역 후에는 새 점령지를 안정적으로 재편할 시간적·물리적 여유도 있었다.

고구려는 주변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미 수립된 국가 전략에 따라 움직였는데, 이는 리델 하트의 ‘간접접근전략’에 부합한다. 또한, 강원도 일원의 말갈 사회를 재편해 남부전선에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⁴²⁾는 에드워드 러트왁이 분석한 ‘로마 제정기 대전략’과도 비견된다.⁴³⁾

국가전략하에서 수립된 군사전략은 그 영역이 비단 ‘군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정부, 국민, 군대와 지휘관)’, 손자의 ‘不戰勝’ 개념, 전략의 3요소(목표, 방법과 위협, 수단) 등은古今을 관통하는 군사전략의 본질이다. 목표는 목적(objectives), 방법은 개념(concepts), 수단은 자원(resources)으로 치환 가능하며,⁴⁴⁾ 이를

42) 신광철, 「강원도 말갈과 고구려의 南進」 『한국상고사학보』 105, 2019, 184~187쪽.

43) Edward N. Luttwak(이동욱 譯), 앞의 책, 2010; 차전환,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조기 로마 제국의 대전략」 『史叢』 100, 2020.

44) 박창희, 『군사전략론』, 플래닛미디어, 2021, 101쪽.

다각도로 접근하면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⁴⁵⁾

<표 4> 군사전략의 3요소

전략의 3요소	관점		
	국가	군사	전략구상
목표(Ends)	국민의 의지·용기·열정	정치적(Political) 영역	Who, Why
방법(Ways)· 위험(risk)	국가의 지혜	술(Art)·과학(Science)의 선택적 영역	When, Where, How (Why)
수단(means)	국가의 힘		What(Why)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전략 역시 정치와 밀접한 관계이다. 정치적으로 적국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목표’라면, 전쟁을 군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방법과 위험’[用兵]이며, 실질적인 전쟁 수행능력에 대한 것을 ‘수단’[養兵]이라 할 수 있다.⁴⁶⁾

산성⁴⁷⁾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관방체계’,⁴⁸⁾ 중국과 비등한 수준의 ‘무기체계’, 부여, 소수맥, 동옥저, 음루, (동)에 등 주변국의 다양한 군사전통을 흡수해 구축한 고구려만의 ‘군사 역량’ 등이 바

45) 오순근·공형준, 「한국군 군사전략의 역할과 전략구상에 대한 답론」 『국방정책 연구』 34-4, 2019, 20쪽.

46) Carl von Clausewitz(류제승 譯), 『전쟁론』, 책세상, 1998; B. H. Liddel Hart (주은식 譯), 앞의 책, 1999; 박창희, 앞의 책, 2021.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전략을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해 전투를 운용하는 기술’이라고 하여 ‘방법’에 비중을 두었지만, 리델 하트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배분하고 운용하는 기술’이라고 하여 ‘수단’에 비중을 두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별로 관심의 비중은 달랐지만, 전략 개념은 방법과 수단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박창희). 즉, 방법·위험과 수단, 술과 과학, 용병과 양병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47) 『周書』 卷49, 列傳41, 異域上, “高麗 … 復有遼東玄菟等數十城, 皆置官司, 以相統攝.”

48) 서영교, 『고구려, 전쟁의 나라: 7백 년의 동업과 경쟁』, 글항아리, 2007. 산성은 단순히 농성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공격에 나설 수 있는 기병의 격납고 같은 곳이었다. 즉, 공격과 방어를 위한 최상의 공간이었다.

로 고구려의 수단이었다. 이를 통해 '독자적인 천하의 유지 및 발전'이라는 국가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고구려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전술을 수립·활용하였다.

보통 전술은 전투에서 보유한 병력과 장비가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여 적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전투의 기본 구성요소는 '시간, 공간, 전투력'이며, 전투는 통상 2~3일, 길게는 1주 정도가 걸리는데, 클라우제비츠는 시간상으로 전투가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 각 전투의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공간적으로는 지휘관 개인의 명령이 미치는 곳까지로 한정하기도 했다.⁴⁹⁾

그렇게 봤을 때 475년 한성 전역의 군사적 특징은 서로 다른 전술들이 分節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순서와 기능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하였다는 데에 있다.

특히 한성 전역에서 첩보의 선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도림 개인의 활동만으로 백제가 내부적으로 붕괴하였고, 백제 북부의 관방체계가 침묵한 것 모두 정보전의 성과로만 귀결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정보전을 통해 고구려군의 향후 작전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역의 선행 단계로 가능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⁵⁰⁾

49) 보통 전투는 전술, 전쟁은 전략으로 단순 등치시키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군사행동의 목표가 전술적인지, 작전적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북연왕 풍흥을 둘러싼 고구려와 송의 대립 속에서 풍흥과 그 일족을 죽인 사건은, 비록 소규모 분견대에 의해 실행되었지만, 국익과 직결되었기에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작전적 수준의 군사행동으로 봐야 한다. 또한, 단발성 전투로 보이는 관미성전투 역시 20일에 걸쳐 벌어진 전투 한번이 아니라, 광개토왕이 백제 북부 관방체계를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술적 공격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50) 『孫子兵法』 謀功, “孫子曰: 凡用兵之法, 全國爲上, 破國次之. 全軍爲上, 破軍次之. 全旅爲上, 破旅次之. 全卒爲上, 破卒次之. 全伍爲上, 破伍次之.” 『손자 병법』에는 '적대국·적의 군대·적의 여단·적의 병사·적의伍를 온전한 상태로 굴복시키는 것을 최상의 방법'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손자의 不戰勝 사상은 '적의 최소저항선 및 최소예상선으로 기동하여 적을 교란하고, 이를 통

이러한 정보전의 성과는 왕도 포위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백제본기」에는 고구려군이 군사를 네 갈래로 나누어 협공했으며, 백제군은 성안에만 틀어박혔다고 적고 있다. 백제군의 퇴로와 연락망, 외곽 방어 거점과 왕도 간의 연결이 차단되면서 왕도 내부는 심리적으로 고립되었을 것이다. 즉, 외부 지원과 내부 機動 모두에 제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장수왕이 親征하고, 아차산 아래에 본영을 둔 채 한수를 건너 왕도를 압박했다는 점, 그리고 대군의 보급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 등을 보면, 포위는 그 자체로 이미 전역 전체의 설계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포위가 성공하려면 진군로 확보와 도강, 병력의 기동⁵¹⁾과 분산·집중, 보급의 지속, 적의 지원군 통제 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포위는 전역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전역의 전체 향방을 알려주는 핵심 指標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戰場에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수단은 화공이었다.⁵²⁾ 화공 역시 단순히 물리적 파괴를 넘어 성내 민심을 동요시키는 심리적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다시 말해 화공은 포위된 백제군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계기이자 승패를 가른 핵심 전술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해 유리한 전략적 상황을 조성해 적 저항 가능성을 감소시킨 뒤 최소한의 전투로 승리를 달성한다는 리델 하트의 '간접접근전략'과 맞물린다.

51) 정광호·임경한, 「간접접근전략으로서 해상봉쇄의 전략적 가치에 관한 연구-미국의 해상봉쇄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해양연구논총』 53, 2020, 233~235쪽; Edward N. Luttwak(이동욱 譯), 앞의 책, 2010. 보통 공격은 정면 공격, 돌파, 포위, 우회 등으로 나뉘는데, 정면 공격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은 모두 기동에 해당한다. 즉, 기동은 단순히 군대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개념도 있지만, 적보다 먼저 움직여 유리한 곳을 先占한다는 개념도 있다. 나아가 적의 물리적 실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가진 전쟁 수행 체계를 와해시켜 적의 전투력 발휘를 무력화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52) 공성전임에도 공성 무기 없이 화공으로 성을 공략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한성 일대의 날씨 정보는 반드시 입수해야 할 1급 정보였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첩보·포위·화공 전술이 서로 연계했다는 점이다. 화공은 정보전으로 적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포위로 적의 선택지를 축소한 뒤에야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당시 왕도는 고립되어 있었고, 백제군은 주도권을 상실한 채 수세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공포와 혼란, 抗戰과 守城 의지의 붕괴를 동시에 유발하는 심리적 수단으로서 화공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개로왕의 탈출과 피살 역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우발적 패주라기보다 신라군을 기다리는 와중에 한성이 더는 버틸 수 없는 극한 상태였음을 상징한다.⁵³⁾ 개로왕 탈출 시 백제 항장들이 그를 추적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고구려군이 전장의 지형과 적의 예상 행동을 상당히 면밀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각 전술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왕도 함락과 적장 포획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수렴했음을 알려준다.

결국, 이 셋은 독립적인 수단이 아니라, 상대의 저항 능력을 단계적으로 약화시키는 연쇄적 장치였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는 곧 장수왕대 고구려의 전쟁 수행 방식이 단순한 군사력 우위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계획성과 입체성을 담보했음을 알려준다. 그런 측면에서 한성 전역은 5세기 고구려 전쟁 수행 방식의 입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다.

53) 한성 전역 시 개로왕과 太后, 王子 등이 모두 죽었다는 『일본서기』를 참고하면, 개로왕이 미리 문주를 후사로 정한 뒤에 탈출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문주가 신라의 지원군과 함께 돌아오기를 바랐을 것이며, 실제 개로왕이 가족은 놔둔 채 홀로 수십 기의 기병만 거느리고 성을 나간 것을 보면, 신라군과 접촉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 같다. 본래는 성안에서 버티면서 신라군과 접촉했어야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성 밖을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개로왕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데 화공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 같다.

다. 중간 단계로서의 ‘作戰的 層位’

475년 한성 전역을 해석하는 데 있어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는, 전역의 각 요소 중 어디까지 ‘전술’로 보고 어디서부터 ‘전략’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에는 作戰(Operation)⁵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과거와 달리 ‘전략-작전-전술’의 3단계로 나눠서 이해하기도 하는데, 당시 전역에서 이러한 시각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

작전술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다. 18~19세기 나폴레옹은 광범위한 공간과 긴 시간에 걸쳐 수십만의 대군을 지휘해 전투를 치렀다. 이때만 해도 군주가 직접 지휘하거나 대리인을 두어 決戰을 통해 승패를 가렸기 때문에, 전략-전술 체제만으로도 군사행동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19세기 말~20세기 초가 되면 넓은 지역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인 전투와 전역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단일 지휘 체제에서 각 부대(연대~군단)가 분리되어 전투와 전역을 담당하기 시작했고, 포병·기병대와의 연계 작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됐다. 더는 2~3km 중심 기동만으로는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으며, 전쟁 기간도 점차 늘어났다. 즉, 20세기에 들어와 결전 하나만으로는 전쟁 종결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전략-전술 개념 적용에 따른 제한 사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태동한 개념이 바로 작전술이다.⁵⁵⁾ 흥미로운 점은 『손자병

54)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는 작전술을 ‘전략, 전술, 근무, 훈련 및 군 행정 임무에 관한 군사적인 행동 또는 그 수행. 어떠한 전투 또는 전역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투 수행 과정, 이동, 보급, 공격, 방어 및 기동 등이 포함된다.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전투, 수색, 행군, 보급 따위의 조치나 방법 또는 그것을 짜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6.3.20.검색).

55) 전갑기, 「전략·전술과 비교를 통한 작전술의 특성 연구」 『한국군사학논총』 8-2, 2019, 159~163쪽.

법』에 나오는 ‘勢’라는 개념이 작전술의 母體와 서로 통한다는 것이다.⁵⁶⁾ 적의 허를 찌르는 기동과 적의 약점 파악, 이를 통한 주도권의 확보가 작전술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데,⁵⁷⁾ 손자가 이미 ‘치밀한 계산을 통해 상대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임기응변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 또는 ‘正으로 맞서고 측로 승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세’를 설명했기 때문이다.⁵⁸⁾

작전술을 ‘목표, 방법, 수단, 위험을 통합하여 전역 또는 작전을 구상하고, 군사력을 조직 및 운용하기 위해 지휘관과 참모들이 숙달된 능력·지식·경험·창의력·판단력을 활용하는 인지적 접근’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⁵⁹⁾

고구려 후기의 전방위적 전쟁 양상을 보면 서부전선과 남부전선을 각자 담당하는 ‘軍團’급 편제의 존재를 상정하게 된다. 이미 그런 경향은 고구려의 영토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그에 따른 군사력의 증대를 불러일으켰던 광개토왕 대부터 간취된다. 매년 전방위적으로 수행하던 군사작전은 더 이상 군주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며, 별도의 군단을 운용해 수행하거나 군주 휘하의 여러 예하 부대가 각자의 작전을 수행하였다.⁶⁰⁾

그 흔적 중 하나가 남부전선에서 확인되는 수십 개의 고구려 관

56) 이종학, 『군사고전의 지혜를 찾아서』,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132쪽. 미국에서 『손자병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시점과 작전술을 적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비슷하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다.

57) 장흥기, 「현대 용병술체계와 작전술의 인식」 『주간국방』 87-796, 1987, 8쪽.

58) 홍민혁, 「세(勢)의 관점에서 바라본 작전술(作戰術)」 『軍事研究』 156, 2023.

59) 합동참모본부, 『합동기획』, 2018.

60) 「고구려본기」 기준으로 126건의 전쟁 기사를 분석했을 때, 왕이 직접 지휘한 경우는 30건, 장수 또는 병력을 보낸 경우는 64건, 전투 사실만 적시한 경우가 40건에 달한다(왕과 장수가 모두 등장하는 8건 중복). 장수왕 56년(468)과 63년(475), 안장왕 11년(529), 영양왕 9년(598) 4건을 제외하면 5세기 이후 왕의 친정 기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 또한 고구려 내에 작전술적 개념이 도입되는 시점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방유적이다. 남부전선의 지휘체계를 추정해 보면, 각 권역의 주둔군은 수십 명의 ‘幢主’와 2~3명의 ‘領千人’, 그리고 수천 명의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末若’으로 이어지는 명령체계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⁶¹⁾ 마지막으로 남동부(對신라)와 남서부(對백제)에 대한 고구려 측 전략이 달랐을 것을 가정한다면, 당시 남부전선에는 1만 명 이상을 지휘할 수 있는 ‘大模達’급 무관이 1명 이상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⁶²⁾

또 하나는 「고구려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局地戰의 흔적이다. 공격을 받은 쪽의 기록에는 공격 주체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기록의 누락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고구려에 부용하거나 재편된 강원도 말갈의 경우, 신라·백제를 공격한 사례가 다수 보이는데, 백제·신라가 오히려 말갈을 공격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고구려에 예속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다.

즉, 두 개의 전선 주둔군은 최종적으로는 도성에 있는 국왕의 명령에 따랐겠지만, 최전방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일일이 도성으로부터 개별 명령을 받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백제·신라 두 나라의 국력, 지형, 외교 노선 등이 다른 상태에서 일관된 군사전략을 수립해 관철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군단과 지휘관이 존재해야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이를 보면 작전술의 역할인 ‘연결’과 ‘통합’의 사례가 당대인에게도 경험적으로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개별 戰鬪의 총합은 전

61) 신광철, 앞의 논문, 2011.

62) 후대 기록이지만 553년 百舍野 전투에서 여창이 격퇴한 ‘고려왕’(양원왕? 제후왕?), 666년 12개의 성·민호 3,500여 호와 함께 신라에 투항한 ‘淵淨土’ 등을 보면 남부전선에서 군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적인 군사·행정권을 지닌 존재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연개소문의 명령도 듣지 않고, 군사적으로도 독립적이었던 ‘안시성주’를 보면 서부전선 또한 비슷한 지휘체계를 가졌을 것이다.

역으로, 여러 戰役의 총합은 戰爭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각과 관점이 요구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통합된 사고는 전장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고, 적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있게 해주었을 것이다.⁶³⁾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고구려군의 강점이 개별 전술의 우월성에 있었다기보다, 서로 다른 수단들을 일정한 순서와 기능 아래 결합하여 적의 대응력과 의지를 소멸시키는 데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본고에서 현대 군사학의 '작전술' 개념이 고대에도 동일한 개념과 이론 체계로 존재했다고 전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구려사를 통틀어 간취되는 작전적 층위가 475년 한성 전역에서도 엿보이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당시 고구려의 군사행동을 입체적으로 복원하고자 할 뿐이다.

앞서 여러번 얘기했듯이 한성 전역은 한 시점의 전투 장면만이 아니라, 준비·이동·포위·공성·전후 처리로 이어지는 연속된 군사행동 전체로 이해해야 한다. 즉, 개별 전술의 집합이라기보다,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전투와 조치를 연결한 전역 차원의 군사행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중간 층위는 무엇보다 목표의 성격에서 확인된다. 전술은 통상 개별 전투에서 적을 격파하거나 특정 거점을 점령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한성 전역의 목표는 보다 상위 차원에 있었다. 이 전역의 핵심은 북성이나 남성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았고,

63) 백제나 신라 또한 이러한 개념이 존재했을 것이다. 단, 국가의 규모와 작전술의 상관관계를 고려했을 때 신라의 경우, 군사전략과 작전술의 경계가 모호했을 것이다. 실제 통일전쟁기까지 김유신 1인에 의한 전략-전술이 신라의 군사·국가전략으로 치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구려의 경우, 한성 전역과 유사한 '龍城 戰役'에서 갈로·맹광의 행동을 보면 戰區 단위의 전략을 수립하고 전력을 운용하는 단계가 존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백제의 왕도와 국왕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군사 질서를 붕괴시키는 데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군의 행동은 마치 독립된 전투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최종 목표를 향해 수렴한다. 북성 공격과 화공, 탈출로 차단, 왕의 생포와 참살은 모두 동일한 목적 아래 취해진 조치였으며, 바로 그 점에서 이 전역은 단순한 포위 공성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성 전역은 시공간의 범위 면에서도 전술보다 넓고, 전략보다는 구체적인 층위를 보여준다. 평양 또는 황해도 일대에서 출병했을 고구려군은 수확 시기와 풍향을 염두에 둔 계절, 지형과 보급 여건 등을 치밀하게 계산하였고, 그 결과 백제 북부 관방체계의 침묵, 백제 교통로의 이용, 안전한 보급 체계 구축 등이 이미 전쟁 이전 단계에 다루어졌다.

즉, 전장은 왕도에 국한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한 군사행동의 범위는 훨씬 넓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정한 공간적 중심과 시간적 연속성을 갖춘 군사행동은 개별 전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전략적 목표를 지향한 보다 상위의, 중간 단계의 운용체계를 상정하게 한다.

지휘와 통제의 문제 역시 궤를 같이한다. 사료는 장수왕 이하 제우를 비롯한 여러 지휘관의 존재를 전하며, 군사를 네 길로 나누어 협공했다는 사실도 함께 남기고 있다. 이는 전역의 전 과정이, 아차산 본영에 있었을 국왕 1인의 지휘로 이루어졌다기보다,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예하 제대가 운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이를 근거로 근대적 의미의 군단 편제나 참모체계를 상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다만, 최소한 한성 전역이 단일 지휘관

의 판단만으로 수행된 전투가 아니라,⁶⁴⁾ 복수의 지휘체계가 연계한 군사행동이었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다. 다시 말해 ‘작전적 총위’란 엄격한 제도사적 실체라기보다, 여러 부대와 그에 상응하는 수단이 단일한 전략 목표 달성을 추구한 운용상의 총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475년 한성 전역은 엄밀히 말해 전략과 전술, 둘 중 하나로 환원되기보다 양자를 매개하는 전역 수행의 중간 총위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략’은 백제의 응징과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전술’은 첩보, 포위, 화공, 추격[尖兵]과 같은 구체적 수단으로 구현되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국제외교, 출병 시기 선택, 행군 및 기동, 보급, 왕도 고립, 복수 전투의 연쇄, 전후 처리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조직한 차원이 바로 ‘작전적 총위’라고 할 수 있다.

64) 405년 후연의 모용희가 요동성 공격을 직접 지휘할 때, 모용희의 고집으로 요동성을 끝내 함락하지 못했다는 기록, 612년 수 양제가 고구려 원정을 직접 지휘하는 과정에서 경직된 병력 운용으로 대패하게 된 기록 등을 보면 당시 동아시아에서 이와 같은 지휘체계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475년 한성 전역을 단순한 기습적 공성전이나 일회성 전투로 보아 온 시각을 재검토하고, 이를 더욱 넓은 전역의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기습론’이 전황의 충격성과 한성백제의 멸망을 설명하기에는 일정한 유효성을 지니지만, 전역 전체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장수왕이 직접 지휘하는 대군이 도성의 턱밑까지 육박해 북성과 남성을 연속적으로 공략하고, 결국 개로왕의 탈출과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은 기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더 나아가 본고는 이 사건을 전략과 전술의 이분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양자 사이의 중간적 운용 차원을 상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제 475년 한성 전역이 단일한 전투를 넘어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목표 아래 일관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됨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고구려가 5세기에 전술과 전략의 중간 단계, 즉 작전적 층위의 운용을 했고, 한성 전역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같은 검토는 475년 한성 전역에 대한 이해를 몇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한다.

첫째, 한성 공함은 외교사적 배경이나 국제정세의 부산물로 설명하는 것보다 전역 자체에 대한 군사학적 검토를 통했을 때, 비로소 그 역사적 의미가 분명해진다.

둘째, 장수왕대 고구려의 전쟁 수행 방식은 병력과 같은 단순한 군사력의 우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정보·보급·기동·공성 수단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더욱 입체적인 양상을 지닌다.

셋째, 한성 전역은 5세기대 고구려가 적국의 핵심 거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압박하고 공략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향후 고구려의 다른 전선 및 동시기 백제·신라 방어체계와의 대응 양상을 비교 검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넷째, 고대 전쟁사에 있어 문헌사학과 고고학, 자연과학이 결합한 방법론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고의 논의에도 일정한 한계는 남아 있다. 현존 사료는 압축적이며 편향되어 있고, 전역의 일부 국면은 여전히 추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백제 내부 세력의 이탈 여부, 고구려군의 세부 지휘 구조와 편제, 보급의 실제 방식, 백제군의 편제와 수군의 활용도, 한강 일대의 수운 체계, 공성전의 세부 국면 등은 향후 보다 축적된 자료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강 유역을 포함한 남부전선의 고고자료, 그리고 주변국의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한다면 궁극적으로 고구려의 국가전략과 전역 수행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고에서 다룬 '475년 한성 전역'은 하나의 종결된 결론이라기보다, 고구려 軍事史 연구를 전역의 차원에서 재구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문헌사료

『三國史記』, 『大東地志』, 『朝鮮王朝實錄』, 『孫子兵法』, 『三國志』, 『魏書』, 『周書』, 『梁職貢圖』, 『隋書』, 『冊府元龜』, 『通典』, 『翰苑』, 『夢溪筆談』, 『日本書紀』

2. 논고 및 발표문

강동석, 「한성백제 도성 안팎의 공간구조」 『물의 기억, 한성의 역사』 풍납토성
발견 100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2025.

김영수, 「삼국시대 병법서의 수용과 그 활용」 『民族文化』 29, 2006.

金暎浩,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비판적 고찰」 『國際政治論叢』 37-2, 1998.
DOI : 10.14731/kjir.1998.02.37.2.3

남보람, 「군사-전쟁 이론 패러다임에 대한 고찰: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과
현대 군사-전쟁 이론 (4)」 『국방정책논단』 385, 2011.

류명환, 「義州路 道程 기록 계통 연구」 『韓國古地圖研究』 6-1, 2014.

박재일, 「손자병법의 性格에 관한 연구-손무의 저술목적, 기술내용, 기술형식
을 中心으로-」, 국방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박찬우, 「5세기 삼국의 대외 위기의식과 전쟁-평양 천도에서 한성 함락까지-」
『한국고대사연구』 112, 2023.

DOI : 10.37331/JKAH.2023.12.112.167

백석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존 미어사이머의 입장과 그의 공격적 현실
주의 간의 관계: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이론 체계」 『한국과 국제
정치』 41-2, 2025.

DOI : 10.17331/kwp.2025.41.2.002

宋昌基, 「고대병서 잡록」 『군사』 14, 1987.

신광철,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韓國上古史學報』 74, 2011.
UCI : G704-000730.2011.74.74.007

신광철, 「강원도 말갈과 고구려의 南進」 『한국상고사학보』 105, 2019.

DOI : 10.18040/sgs.2019.105.149

沈敬順, 「古代 百濟僧 研究」, 全州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20.

- 양준희·박건영,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비판」 『國際政治論叢』 51-3, 2011.
DOI : 10.14731/kjir.2011.09.51.3.7
- 오순근·공형준, 「한국군 군사전략의 역할과 전략구상에 대한 담론」 『국방정책연구』 34-4, 2019.
DOI : <http://dx.doi.org/10.22883/jdps.2019.34.4.001>
- 유연성, 「임진왜란기 한성 주변 전투의 전략적 의의」 『韓日關係史研究』 48, 2014.
DOI : 10.18496/kjhr.2014.08.48.93
- 위가야, 「472~475년 백제·고구려의 對북위 외교전과 한성 함락」 『高句麗渤海研究』 66, 2020.
DOI : <http://dx.doi.org/10.34159/tkby.66..202003.002>
- 이성호, 「성내천 하류역의 고지형 연구」 『先史와 古代』 65, 2021.
DOI : 10.23024/pah.2021..65.81
- 이성호, 「강동구 서부지역의 고지형 연구」 『先史와 古代』 68, 2022.
DOI : 10.23024/pah.2022..68.217
- 이승우·양시은, 「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 관방체계 연구」 『고조선단군학』 49, 2022.
DOI : 10.18706/jgds.2022.12.49.89
- 李販燮, 「百濟 交通路의 考古學的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5.
- 이희경, 「백제 국가형성기 농업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임대천, 「5세기 동북아시아 패권 경쟁 시기 고구려·북위·송의 삼각관계 동학-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 장흥기, 「현대 용병술체계와 작전술의 인식」 『주간국방』 87-796, 1987.
- 전갑기, 「전략·전술과 비교를 통한 작전술의 특성 연구」 『한국군사학논총』 8-2, 2019.
DOI : <http://dx.doi.org/10.34166/rokms.2019.8.2.159>
- 정광호·임경한, 「간접접근전략으로서 해상봉쇄의 전략적 가치에 관한 연구-미국의 해상봉쇄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해양연구논총』 53, 2020.
-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椴岑城 전투와 功勳의 逆相續」 『北岳史論』 18, 2023.
DOI : 10.37288/bukak.2023.18.5.151

- 鄭載潤, 「475년 漢城戰鬪의 軍事戰略과 戰爭史의 意味」 『軍史』 50, 2003.
- 정치영, 「『千一錄』을 통해 본 조선 후기 농업의 지역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 회지』 9-2, 2003.
- 조범중, 「高句麗의 垂驛制와 交通路-國內城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 연구』 63, 2011.
UCI : G704-000848.2011..63.003
- 崔珍烈, 「唐太宗 高句麗 親征과 唐軍의 병력-군량으로 추산한 唐軍의 수와 그 함의」 『軍史』 124, 2022.
DOI : <http://dx.doi.org/10.29212/mh.2022..124.133>
- 차전환,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조기 로마 제국의 대전략」 『史叢』 100, 2020.
DOI : <http://dx.doi.org/10.16957/sa..100.202005.205>
- 충북연구원, 「附錄. 우리나라 도량형의 변천 역사」 『100년 전 충북의 옛 모습』, 2004.
- 판보싱, 「동북아에서 강대국의 부상과 주변국의 동맹전략 선택-백제와 신라의 사례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허의행, 「한성기 백제 도성의 입지와 공간 구성의 검토」 『고고학』 22-2, 2023.
DOI : 10.46760/jbgogo.2023.22.2.63
- 홍민혁, 「세(勢)의 관점에서 바라본 작전술(作戰術)」 『軍事研究』 156, 2023.
- 戴衛紅(方國花 譯), 「서진 도량형의 발전 변화-郴州 晉簡을 중심으로-」 『목간과 문자』 32, 2024.
DOI : 10.35302/wdis.2024.06.32.193
- Stephen M.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9-4, 1985.
- Yongho Choi · Sung Ju Cho, 「Climate Variability and Agricultural Outputs in North Korea: An Econometric Analysis of Rice and Corn Yields」 『Climate Variability and Agricultural Outputs in North Korea: An Econometric Analysis of Rice and Corn Yields』 31, 2024.
- 吳慧, 「魏晉南北朝隋唐의 度量衡」 『中國社會經濟史研究』 1992-3, 1992.

3. 단행본 및 보고서

- 박호석, 『한국의 재래농기구』, 한국학술정보, 2004.
- 박창희, 『군사전략론』, 플래닛미디어, 2021.

-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국가전략·포괄적 안보전략·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통일연구원, 2000.
- 서영교, 『고구려, 전쟁의 나라: 7백 년의 동업과 경쟁』, 글항아리, 2007.
- 이종학, 『군사고전의 지혜를 찾아서』,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합동참모본부, 『합동기획』, 2018.
- B. H. Liddel Hart(주은식 譯), 『전략론』, 책세상, 1999.
- Carl von Clausewitz(류제승 譯), 『전쟁론』, 책세상, 1998.
- Edward N. Luttwak(이동욱 譯), 『전략: 전쟁과 평화의 논리』, 경남대학교출판부, 2010.
- John J. Mearsheimer(이춘근 譯),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미중 패권경쟁의 시대-』, 김앤김북스, 2017.
- 孫繼民, 『唐代行軍制度研究』, 北京: 文津出版社, 1995.
- Etienne Alexandre Bardin, 『Dictionnaire de l'armée de terre, ou Recherches historiques sur l'art et les usages militaires des anciens et des modernes, vol. 2』, Paris: Perrotin, 1841.
- United States Joint Chiefs of Staff,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With the NATO, CENTO and IADB Glossaries incorporated』, JCS Pub 1,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1979.

<Abstract>

A Military Reappraisal of the Hanseong Campaign of 475 CE

Shin, Kwang-cheol

This article reexamines the Hanseong Campaign of 475 CE not as a simple surprise siege, but as a planned military operation in which Goguryeo integrated prior intelligence, force mobilization, encirclement, fire attack, and logistical support. Previous scholarship has focused primarily on the diplomatic background of Hanseong's fall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ntext, leaving the actual course of the campaign and its military character relatively underexamined. To address this gap, the study cross-reads textual sources with archaeological and scientific evidence concerning Baekje's defensive network in the Hanseong period, paleotopography, traces of fire, transportation routes, and supply conditions.

The analysis suggests that Goguryeo's southward advance was not an abrupt, improvised assault, but a planned campaign that combined intelligence gathering, troop mobilization, logistical preparation, encirclement of the capital area, and fire attack. In this respect, the Hanseong Campaign points to an operational level mediating between strategic objectives and tactical action rather than to a single battle in the narrow sense. By drawing on concepts from modern military studies in a limited and cautious manner, this article clarifies one aspect of Goguryeo's conduct of war

under King Jangsu.

This reappraisal revises prevailing interpretations of the Hanseong Campaign and highlights the planning, complexity, and continuity of Goguryeo's warfare under King Jangsu.

Keywords : King Jangsu; Hanseong Campaign; operational level; military operations; surprise-attack thesis

논문투고일 : 2026.03.26. 심사완료일 : 2026.05.08. 게재확정일 : 2026.05.12.